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4. Vol. 87 No. 2 pp. 99~127

# 대학생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 타당화 연구

박명진, 양난미, 이명신

## 대학생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 타당화 연구\*

박명진 \*\*, 양난미 \*\*\*, 이명신 \*\*\*\*

### 초 록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국내외 선행 연구를 개관하고 이차피해의 정의를 분석하여 이차피해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경험적으로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질적 연구(김호원 등, 2014;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 예비문항 31문항을 제작하였고, 개발된 예비척도에 대해 대학생 65명에게 문항이해도를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최종문항을 확정하기 위해 대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예비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4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1요인은 피해자 비난 문항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인식, 2요인은 의심 문항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에 대한 인식, 3요인은 합의종용 문항으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부추기는 것에 대한 인식, 4요인은 피해자 감수 문항으로 성폭력 신고 이후 피해자는 어려움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311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강간 통념, 남녀평등, 공감과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수렴, 공존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3주후 실시한 재검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 및 시사점, 그리고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이차피해(Secondary Victimization), 강간 통념(rape myth), 척도 타당화(validation of scale)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5238).

\*\* 제1저자, 경상대학교 심리학과(endless269@naver.com).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behelper@gnu.ac.kr).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wellee@gnu.ac.kr).

## I. 서론

한편, 성폭력 범죄의 증가에 따라 2012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적으로 제정되었고,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확대되었으며, 원스톱지원센터나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개설되는 등 최근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성폭력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사건을 겪고 나서 추가적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피해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취약한데 법무연수원(2014)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2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남성 831명, 여성 19,998명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성폭력 범죄 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질적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임을 나타내며, 이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여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이후 불안, 강박, 우울, 죄책감, 낮은 자존감 등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면장애, 섭식장애, 자해행동 등 다양한 수준의 신체장애(여성가족부, 2010)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게 되기도 한다(소은희, 2001). 성폭력 피해로 인한 증상과 장애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인이 이후의 경계선 성격장애, 우울증, 자아정체감 장애 등으로 연결되기도 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신영, 2010; 홍강의, 2005). 따라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여성에 대한 여성정책기초이론을 탐색하고 한국의 여성문제 및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일차피해와 이차피해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차피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받은 직접적인 피해를 의미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이에 비해 이차피해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Campbell과 Raja(2005)는

피해자에게 부차적인 외상을 초래하는 비난적 태도와 행동, 지역사회 서비스 실천을 이차피해로 정의하고 이차피해의 예를 형사사법 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 행동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 행동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형사사법 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 행동에는 신고하지 말라고 함, 신고접수를 거부함, 기소할 만큼 사건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함, 가해자와의 이전관계에 대한 질문, 옷차림에 대한 질문, 이전의 성관계에 대한 질문, 가해자에게 저항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대한 질문 등이 포함되고 의료서비스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 행동에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 성폭력으로 인한 성병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 정서적 상태를 신경 쓰지 않은 채로 진료, 가해자와의 이전관계에 대한 질문, 성폭행 중 알코올 및 약물 사용여부 질문 등을 예로 제시하였다. 유사하게 정현미(2000)는 법적 절차에서 정신적 상처가 더 깊어지거나 절차에 참여하면서 드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이차피해라고 정의하였고, 장미정(2005)은 이차피해를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로 정의하였다. 허선주와 조은경(2012)은 성폭력 사건 이후 사회적 체계 및 주변 환경에 의해 간접적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이미경(2012)은 범죄피해 이후 사법기관, 언론, 의료기관, 가족, 친구로부터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이차피해를 정의하였다. 각 연구자마다 이차피해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이차피해가 전문가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관점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계 및 주변 환경과 가족, 친구들의 행동도 이차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차피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의 이차피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이나 이후 생활의 주변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차피해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허선주와 조은경(2012)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이차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학술지에 기재된 성폭

력 이차피해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26편으로, 20편(76.9%)이 법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학 2편(7.7%), 행정학 1편(3.9%), 경영학 1편(3.9%), 여성학 1편(3.9%), 심리학 1편(3.9%)순이었다. 국외의 성폭력 이차피해에 관한 연구는 총 23편이 기재되었는데 여러 학문 분야들이 제휴하여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의 성향을 띤 연구가 13편(56.5%)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학 8편(34.8%) 법학 2편(8.7%)순 이었다. 국내외의 이차피해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이들은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이차피해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국내와 달리, 국외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차피해가 비단 형사사법체계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Ahrens(2006)는 전문가, 친구나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 실험 결과, 전문가, 친구나 가족과 같은 지지 제공자들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성폭력 피해자들은 침묵하고 자기 비난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반응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찰자의 지각, 사회적 반응 및 태도, 지역사회체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선주, 조은경, 20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차피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법제도나 형사사법체계, 의료기관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법제도나 형사사법 절차 이후 피해자들은 실생활에서의 주변 환경에서 이차피해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이들의 치유가 더뎌지게 되기 때문에(Ahrens, 2006) 일반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일반인들의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이나 인식을 측정하는 타당한 측정 도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는 법적 제도나 체계, 문화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문화 안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의 주변인들과 일반인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차피해에 대한 일반인의 민감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건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이차피해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성폭력 상담자 및 경찰 등 다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결과(김호원 등, 2014;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들을 참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 간의 연계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그 중 성폭력 피해자들이 각 전문기관에 연계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차피해에 관한 딜레마와 연계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이차피해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문항개발 과정에 참고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각 연령마다 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이에 따라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인식도 다를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연령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성폭력 범죄는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연령에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 대학 내 성폭력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공미혜, 2010; 공미혜, 구명숙, 허미영, 2008).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의 이차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일반 성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인기에 이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령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판단하였고, 성폭력 피해경험률이 가장 많은 연령과 성폭력 가해 및 피해 위험이 높은 대상을 대학생이라고 보았기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선정하여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을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이차피해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일반 성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

력 피해자의 이차피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궁극적으로는 성폭력 이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예비문항개발

먼저 문항개발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여 연구에서 사용된 이차피해의 정의를 분석하여 이차피해의 구성개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다양한 구성개념이 포함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건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이차피해로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이차피해 행동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질문, 피해자를 의심하는 태도, 피해자가 책임을 감수하게 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비해, 일차피해는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가 발생해서 받은 피해이며, 삼차피해는 일·이차피해를 입고 적절하게 치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이차피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한국의 연구들은 주로 경찰과 검찰, 법적 제도 및 수사과정 절차상황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피해, 강간통념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 등 수사관 및 전문가와의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외국의 연구에서는 수사거부, 진료거부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와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 행동적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 문화 특성을 경험적으로 반영하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성폭력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결과(김호원 등, 2014;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이차피해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 개발의 예로 이명신 등(2014)의 연구에서 상담자는 경찰이 여성이라면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폭력 상황

에 대해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대표적인 이차피해로 지각하였고, 이러한 질적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가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자세히 질문할 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은 피해자가 감수할 부분이다.”와 같은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표 1〉 기존 연구에서 이차피해 구성개념

| 저자                   | 이차피해 정의   | 예 시   |
|----------------------|---|---|
| 정현미<br>(2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절차에서 정신적 상처가 더 깊어지거나 절차에 참여하면서 드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li> </ul>   | 수사기관에서의 잦은 소환, 중복질문 또는 지나친 수사,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 사정 여부에 관한 질문, 피해자의 유발을 의심하는 경우, 피해자의 반항정도와 구조요청 질문, 강간치상사건의 상해에 관한 질문 등   |
| 곽대경<br>신재현<br>(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li> <li>• 수사,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li> <li>• 언론의 취재, 보도로 인한 불쾌감</li> <li>• 대인관계악화 등의 다양한 문제</li> </ul> | 이차적 범죄피해자화로 인한 정신적 쇼크와 신체의 부조, 의료비부담과 실직, 전직 등에 의한 경제적 곤궁, 조사, 재판과정에 있어 정신적, 시간적 부담, 주위의 무책임한 소문과 언론보도에 의한 불쾌감과 스트레스, 가족친구와의 인간관계 악화, 이사 등  |
| 김예람<br>(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li> <li>• 형사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추가적인 고통</li> </ul>            | 법,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이차피해, 경찰관의 성폭력 통념으로 인한 이차피해  |
| 이재희<br>(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피해 이후 검·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 병원, 가해자, 가족, 주변인, 언론 등 사회적제도와 편견으로부터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li> </ul>                         |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질문,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수사관의 태도, 강압적이거나 신분이 보호되지 않는 조사 분위기, 가해자옹호 및 합의종용, 재판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자에 의한 수치심, 비난조의 발언, 가해자 측 증인에 의한 피해,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재판절차 및 제도로 인한 피해, 부당한 판결에 의한 피해, 의료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낙후성에 의한 피해 등 |



| 저자                                  | 이차피해 정의   | 예 시  |
|-------------------------------------|---|--|
| 허 선<br>주, 조<br>은경<br>(2012)         | •일차피해는 성폭력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고 그 외에 사건 이후 사회적 체계 및 주변 환경에 의해 간접적으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이차피해 |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것, 형사사법체계가 수사과정상 실제적 진실 발견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에게 가하는 추가적인 수모와 고통 등   |
| Camp<br>bell &<br>R a j a<br>(2005) | •피해자에게 부차적인 외상을 초래하는 비난적 태도와 행동   |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행동(8가지)은 신고하지 말라고 함, 신고접수를 거부함, 기소할 만큼 사건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함, 가해자와의 이전관계에 대한 질문, 옷차림에 대한 질문, 이전의 성관계에 대한 질문, 가해자에게 저항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대한 질문<br>의료서비스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행동(5가지)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 성폭력으로 인한 성병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 정서적 상태를 신경쓰지 않은 채 진료, 가해자와의 이전관계에 대한 질문, 성폭행 중 알콜 및 약물 사용여부 질문 |
| Maier<br>(2008)                     | •재희생화는 형사사법체계와 의료체계에 의한 피해자 비난, 소외, 낙인 등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강간이후 경험하게 되는 외상                          |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성폭행당한 것에 대한 비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발생함  |

### Ⅲ.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문항 개발과정을 통해 구성된 31개의 예비문항이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이해도를 확인하였고, 최종 문항선별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방법

### 1) 연구대상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예비) 척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문항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대구, 부산의 3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소재 4년제 대학생 67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응답사례 중에서 연령이 30세를 초과하는 2명의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6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20세에서 28세( $M=22.95$ ,  $SD=2.11$ )이었고, 성별은 남자 17명(26.2%), 여자 48명(73.8%)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서울, 대구, 부산의 3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소재 4년제 대학생 326명의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문항 31문항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연구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18세에서 28세( $M=22.26$ ,  $SD=2.02$ )였고 성별은 남자 155명(47.7%), 여자 168명(51.7%), 무응답 2명(0.6%)이었으며, 학년으로는 1학년 29명(8.9%), 2학년 17명(5.2%), 3학년 118명(36.3%), 4학년 159명(48.9%), 무응답 2명(0.6%)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예비) 척도의 이해도

각 문항의 이해도를 검토하기 위해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예비) 척도 31문항에 대해 각 문항마다 문항이해도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이해도의 응답방식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가 1점, ‘매우 잘 이해된다’가 5점인 5점 척도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문항이 성폭력 이차피해로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2)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예비) 척도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예비) 척도는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

렇다'가 5점인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였다.

### 3) 분석방법

예비문항에 대해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이해도, 문항-총점 간 상관 등을 검토하여 18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예비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스크리 도표 등을 확인하였다. 공통요인을 추출하기에 앞서 주성분 분석을 통해 몇 개의 주성분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요인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탁진국(2007)의 의견에 따라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고유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스크리 도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요인수를 가지고 각각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수를 확정하였다. 사용된 공통요인분석으로는 주축 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과 직각회전(Equamax)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통요인을 추출하여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에는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였다.

## 2. 연구결과

### 1) 문항분석

첫째, 문항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문항별 평균값의 최소값이 3.82, 최대값이 4.48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의 이해도 평균값이 '보통이다' 이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문항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문항의 평균이 극단적인 값을 갖고 있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그 문항에서 점수들의 분산이 작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탁진국(2007)에 따라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였다. 문항별 응답 평균값은 최소 1.26, 최대 2.88이었고 표준편차는 최소 .53, 최대 1.24였다. 평균의 경우, 1.5 미만 또는 3.5를 초과하는 문항을, 표준편차의 경우 .7 이하인 문항을 양호도가 좋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하였다는

〈표 2〉 예비척도의 구조계수행렬

|      | 문 항 내 용   | 1    | 2    | 3    | 4    |
|------|---|------|------|------|------|
| 이피29 |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나무란다.                            | .702 | .261 | .199 | .171 |
| 이피28 |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면, 암묵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나무란다.                                     | .692 | .220 | .152 | .194 |
| 이피27 | 체팅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구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친구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 .608 | .167 | .284 | .219 |
| 이피30 |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였다면 이는 합의된 성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580 | .249 | .227 | .272 |
| 이피26 | 클럽, 술집 같은 유흥가에서 친구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왜 그런 곳에 갔는지 묻는다.                                   | .480 | .149 | .337 | .223 |
| 이피31 | 실제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성폭력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 .350 | .261 | .162 | .147 |
| 이피7  |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울지 않거나 무감각해 보이는 피해자를 볼 때, 정말 성폭력을 당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 .118 | .707 | .214 | .314 |
| 이피6  |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피해자를 볼 때 정말 성폭행을 당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 .196 | .681 | .205 | .134 |
| 이피5  | 피해자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뭔가 쟁기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 .286 | .439 | .287 | .376 |
| 이피2  |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성행위가 이루어진 후 신고를 했다면,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 .283 | .355 | .171 | .221 |
| 이피23 |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 .078 | .107 | .652 | .093 |
| 이피24 | 주변에 성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승소하기 어렵다면 합의하라고 설득한다.  | .207 | .190 | .602 | .100 |
| 이피9  |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면,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 .202 | .370 | .422 | .229 |
| 이피8  | 아동이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다면 그건 부모나 다른 어른이 사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162 | .310 | .345 | .209 |
| 이피10 | 전문가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자세히 질문할 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감은 피해자가 감수할 부분이다.                      | .102 | .153 | .122 | .660 |
| 이피11 |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감수해야 한다.                                      | .133 | .203 | .162 | .583 |
| 이피3  | 과거 성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보다 충격이 덜 할 것이다.                                       | .208 | .363 | .012 | .416 |
| 이피25 | 친구가 피해자라면, 안타까운 마음에 왜 더 완강히 거부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 .220 | .045 | .290 | .305 |

심예린(2010)의 판단을 기준으로 9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셋째, 빈도분석 결과, 척도의 최대값이 4점으로 나타나, 척도의 반응이 편향되어있다고 판단된 2개의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였다. 넷째, 20개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개의 문항을 추가로 더 삭제하였다. 겹치는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삭제된 문항은 13개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된 문항은 18개 문항이었다.

## 2) 탐색적 요인분석

선별된 18개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검토한 결과 KMO 값은 .906,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chi^2$  값은 2041.271( $p < .001$ )로 나타나 자료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 1.0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4개였고, 스크리 도표도 요인의 수가 4개인 지점부터 경사가 완만해지므로 추출될 요인의 수는 4개가 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요인수를 2에서 4개로 지정하여 공통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2요인, 3요인, 4요인으로 요인의 수를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해석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4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와 같이 최종 4요인에는 1요인 6문항, 2요인 4문항, 3요인 4문항, 4요인 4문항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미만으로 낮게 나타난 문항은 1요인에서 1개, 2요인에서 1개, 3요인에서 1개, 4요인에서 1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4개의 문항을 삭제하였고, 남은 14문항을 한국 대학생 성폭력 이차 피해 민감성 척도로 확정하였다. 1요인은 16.14%를, 2요인은 12.50%를, 3요인은 10.79%를, 4요인은 10.56%를 설명하였고, 전체변량의 49.99%를 설명하였다.

이 척도의 4가지 요인에서 1요인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비난하는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피해자 비난’으로 명명하였고, 2요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는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의심’으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부추기는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합의종용’으로 명명하였고, 4요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신고 이후 감수해야 할 점들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피해자 감수’로 명명하였다. 4가지 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1요인 .84, 2요인 .76, 3요인 .64, 4요인 .65였고, 전체 Cronbach's  $\alpha$  는 .88로 비교적 높으므로 전체문항의 타당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척도의 문항은 〈표3〉과 같다.

〈표 3〉 최종척도의 문항

| 문 항 내 용   |   |
|-----------|---|
| 피해자<br>비난 | 이피29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나무란다.                           |
|           | 이피28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면, 암묵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나무란다.                                     |
|           | 이피27 채팅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구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친구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
|           | 이피30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였다면 이는 합의된 성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           | 이피26 클럽, 술집 같은 유흥가에서 친구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왜 그런 곳에 갔는지 묻는다.                                  |
| 의심        | 이피7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울지 않거나 무감각해 보이는 피해자를 볼 때, 정말 성폭력을 당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
|           | 이피6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피해자를 볼 때 정말 성폭행을 당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
|           | 이피5 피해자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뭔가 쟁기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
| 합의<br>종용  | 이피23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
|           | 이피24 주변에 성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승소하기 어렵다면 합의하라고 설득한다.   |
|           | 이피9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면,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
| 피해자<br>감수 | 이피10 전문가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자세히 질문할 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은 피해자가 감수할 부분이다.                     |
|           | 이피11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감수해야 한다.                                     |
|           | 이피3 과거 성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보다 충격이 덜할 것이다.  |

## IV.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1에서 확정된 4요인 14문항에 대하여 새로운 표집 323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방법

#### 1) 연구대상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서울, 대구, 부산의 3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소재 4년제 대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학생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응답에 결측치가 있는 12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총 311명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의 연령은 17세에서 27세 사이로 평균연령은 만 21.14세( $SD=2.26$ )이었고, 성별은 남자 183명(58.8%), 여자 128명(41.2%)이었으며, 학년으로는 1학년 91명(29.3%), 2학년 73명(23.5%), 3학년 76명(24.4%), 4학년 65명(20.9%), 무응답 6명(1.9%)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결정한 한국 대학생의 성폭력 이차피해를 묻는 총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피해자 비난’ 5문항과 ‘의심’ 3문항, ‘합의중용’ 3문항, ‘피해자 감수’ 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맞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타당도 검증을 할 때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피해자 비난 .84, 의심 .67, 합의중용 .61, 피해자 감수 .59였고, 전체 .88이었다.

## (2) 강간통념 수용도 척도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urt(1980)의 척도를 토대로 강간통념을 추가로 포함시켜 개발한 이석재(1999)의 강간통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 4문항,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5문항, 성폭행 피해자의 책임귀인 4문항, 피해자의 경솔 2문항,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2문항,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3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1점 ‘매우 부정’에서 9점 ‘매우 긍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석재(1999)가 보고한 Cronbach's  $\alpha$ 는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이 .75,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가 .75, 성폭행 피해자의 책임귀인이 .71, 피해자의 경솔이 .69,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50,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이 .45이었고, 전체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86, .82, .77, .72, .86, .76였고, 전체는 .93이었다.

## (3) 공감능력 척도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병성(2003)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으로 나뉘고, 인지 공감은 관점취하기 8문항과 상상하기 7문항, 정서 공감은 타자 지향적인 공감적 각성 7문항과 개인적 고통 정서 8문항으로 다시 나뉘어 총 4개 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병성(2003)이 보고한 Cronbach's  $\alpha$ 는 인지공감 .67, 정서공감 .80, 전체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을 각각 사용하였는데 인지 공감의 관점취하기 .75, 상상하기 .70이었고, 정서 공감의 타자 지향적인 공감적 각성 .74, 개인적 고통 정서 .80이었으며, 전체 .92이었다.

## (4) 남녀평등의식 척도(KGES-AC)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양희와 이수연(2002)이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KGES-A)를 축약하여 만든 단축형 검사로 하정, 홍세희, 유성경(2005)이 수



정하여 만든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and Child: KGES-A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생활 5문항과 학교생활 5문항, 직업생활 5문항과 사회문화생활 5문항으로 총 4개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방식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하정, 홍세희, 유성경(2005)이 보고한 Cronbach's  $\alpha$ 는 가정생활 .70, 학교생활 .68, 직업생활 .74, 사회문화생활 .62, 전체 .8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60, .68, .71, .68 였고, 전체 .89이었다.

###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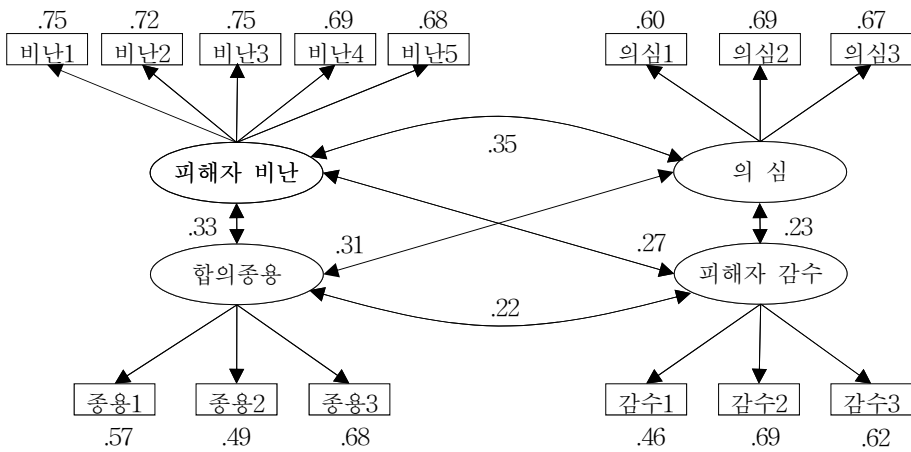
한국 대학생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요인구조가 다른 표집에서도 타당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해 RMSEA, TLI, CFI, GFI를 확인하였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이하 일 때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되며(Hu & Bentler, 1999)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G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배병렬, 2011). 모든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2. 연구결과

### 1)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한국 대학생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구성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4요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 은 183.132(df=71,  $p < .001$ ), GFI .919, TLI .899, CFI .921으로 대체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는 .071로 보통 적합도를 보였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6에서

.75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의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피해자비난과 의심이 .35( $p < .001$ ), 피해자비난과 합의종용이 .33( $p < .001$ ), 피해자비난과 피해자감수 .27( $p < .001$ ), 의심과 합의종용이 .31( $p < .001$ ), 의심과 피해자감수가 .23( $p < .001$ ), 합의종용과 피해자감수가 .22( $p < .001$ )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2) 타당도 분석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타당도검증을 위해 <표 4>와 같이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는 것은 강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의 잘못된 신념을 의미하는 강간통념 수용도가 낮은 반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은 높을 것이라 점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강간통념 척도 총점, 공감 척도의 총점, 공감 척도의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와 강간통념 척도( $- .61, p < .01$ )는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공감 척도 총점( $.24, p < .01$ ) 및 하위척도와는 비교적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가 공감능력 보다는

강간통념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이는 강간통념이 공감능력보다 이차피해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면 강간통념은 낮고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제공한다.

〈표 4〉 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인들 간의 상관

|      | 이차피해   | 강간통념   | 공감    |
|------|--------|--------|-------|
| 이차피해 | -      |        |       |
| 강간통념 | -.61** | -      |       |
| 공감   | .24**  | -.15** | -     |
| 인지관점 | .19**  | -.12*  | .83** |
| 인지상상 | .12*   | -.04   | .81** |
| 정서타자 | .23**  | -.14*  | .83** |
| 정서개인 | .26**  | -.18** | .84** |

주: \*\* $p < .01$ , \* $p < .05$ . 공감, 이차피해, 강간통념은 각 척도의 총점을 나타냄

다음으로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차피해 민감성과 관련 있는 강간통념과 변별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차피해 민감성과 강간통념과의 상관, 공차, VIF 값을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남녀평등의식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강간통념, 이차피해 민감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강간통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이차피해 민감성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강간통념이 25%의 설명량을 보였고( $R^2 = .25$ ,  $p < .001$ ), 2단계에서 이차피해 민감성이 5%의 증가된 설명량을 보였다( $\Delta R^2 = .05$ ,  $p < .001$ ). 이러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는 이차피해 민감성이 강간통념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며 이 둘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남녀평등의식에 대해 강간통념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남녀평등에 대한 강간통념, 이차피해 민감성의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D  | $\beta$ | R <sup>2</sup> | $\Delta R^2$ |
|------|------|------|-----|---------|----------------|--------------|
| 남녀평등 | 1단계  |      |     |         |                |              |
|      | 강간통념 | .18  | .02 | .50     | .25            |              |
|      | 2단계  |      |     |         |                |              |
|      | 강간통념 | .11  | .02 | .32     | .30            | .05***       |
|      | 이차피해 | -.19 | .04 | -.29    |                |              |

주: \*\*\* p<.001

### 3) 검사-재검사 신뢰도

3주 간격으로 실시한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전체 문항의 총점 간 상관계수는 .80( $p<.01$ )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들의 상관계수는 피해자 비난 .80, 의심 .53, 합의종용 .58, 피해자 감수 .65으로 나타났다( $p<.01$ ). 전체 총점 간 상관계수 및 하위 요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이는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점수가 시간이 경과하여도 안정적인 측정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V. 논의

최근 성폭력 범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차피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범죄 이후 여러 상황에서 피해를 재경험하기 때문에 이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뿐만 아니라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이차피해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성폭력 이차피해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예비문항 개발을 위해 이론적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여 이차피해의 구성개념을 탐색하였고, 경험적으로 현재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결과(김호원 등, 2014;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 2014)를 검토해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31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 이해도 평가, 평균과 표준편차 검토, 빈도분석 검토, 문항-총점간 상관 비교 등의 문항분석과정을 통해 13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총 18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후 선별된 18문항으로 대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피해자 비난, 의심, 합의종용, 피해자 감수의 4요인 14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생 311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요인 14문항으로 구성된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성폭력 이차피해 척도가 강간통념 척도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고, 공감 척도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성폭력 이차피해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통해 변별유용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3주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를 통해 개발된 척도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성인을 대표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 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이해가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협소한 관점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계, 주변 환경, 가족, 친구들의 행동들도 이차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점으로 확장되었고, 실험연구를 통해서도 주변인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Ahrens, 2006). 하지만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허선주, 조은경, 2012) 그 이유 중 하나가 연구에 필요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성인들이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파악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폭력 이차피해 연구가 촉진 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또한 이차피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둔 가정이나 주변인들을 교육하여 이차피해를 줄

이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포괄하여 일반 성인뿐 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폭력 이차피해는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해외에서의 연구를 국내에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상당한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교문화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교문화는 개인주의적이며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서구문화와 대비적으로 가족에 대한 응집력이 높고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강조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한국사전연구사, 1998).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성폭력 이차피해에 관한 민감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질적 연구들과 양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과 타당화를 진행하여 우리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셋째, 여러 선행연구에서의 강간통념이 이차피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면서 또한 강간통념과 이차피해는 변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을 때, 성폭력 이차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경제적 손해, 언론의 보도 및 취재로 인한 불편감, 대인관계 악화, 형사사법 시스템, 사회적 제도와 편견, 강간통념, 공정한 세상 신념(a just world belief)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었으나(곽대경, 신재현, 2010; 김예람, 2008; 이재희, 2008; 장미정, 조은경, 2004; 정현미, 2000; 허선주, 조은경, 2012; Lerner, 1980) 일반적으로 강간통념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그만큼 성폭력 이차피해는 강간통념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장미정(2005)에 따르면 이차피해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라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이차피해는 성폭력 관련 형사사법 절차상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신고를 더디게 하게 됨으로써 이차피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간통념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되어 있는데(Burt, 1980), 우리나라

라 문화는 예로부터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하며 음행을 저지르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 왔으며, 여성들은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야 하며 밤늦게 돌아다니더라도 안 되는 등 여성의 행실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이러한 인식이 여성의 노출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편견으로 이어지며 수사관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주변인들의 태도에 반영되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소은영, 2004; 이재희, 2008).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의 진위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강간통념과 같은 인식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연구결과, 이차피해 민감성과 강간통념은 부적 상관을 보여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강간통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차피해 민감성이 높을수록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다는 장미정(2005)의 연구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남녀평등의식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강간통념을 먼저 투입하고 2단계에서 이차피해 민감성을 투입한 결과, 이차피해 민감성이 추가적인 유의한 설명력이 있었기에 이차피해 민감성은 강간통념과 차별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 척도는 남녀평등의식에 대해 강간통념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가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한국에서 성폭력 이차피해에 포함되는 요인의 구조를 확인하고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가 분석을 통해 성폭력 이차피해 문항 총점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이차피해에 가장 관련이 높은 요인은 피해자 비난 요인(.86,  $p < .01$ )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비난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 강간통념과도 높은 상관(.57,  $p < .01$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차피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피해자의 유발을 의심하는 질문이 일관되게 이차피해의 대표적인 행동임을 지적인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김예람, 2008; 이재희, 2008; 정현미, 2000; 조은경, 2012; Campbell & Raja, 2006; Maier, 2006). 따라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는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재회생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차피해 예방교육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이차피해 민감성 척도의 개발은 일반 성인들의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이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이차피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차피해 인식 개선 및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로 개발된 척도는 성폭력 범죄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연령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성가족부(2010)의 연구결과에 따라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연령대에 사용할 때는 해석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청소년이나 30대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집단 분석을 통해 집단의 동일성에 대한 검증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척도개발에 사용된 문항은 성폭력 이차피해를 유발하는 민감성에 관련된 문항이므로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보고식 척도로 개발되었기에 응답왜곡이 일어났을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응답자들은 설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사회적인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이 있기에(Rubin & Babbie, 2008) 수집된 정보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조사결과를 낳게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Fisher, 1993). 또한 이러한 경향성이 본 연구에서 비교적 낮은 평균 점수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을 함께 측정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에 대해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남녀 집단 간 요인구조의 차이를 보기보다는 하나의 성인집단으로서 요인을 도출하였다. 성폭력은 주로 남성이 가해자이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폭력 실태나 태도는 사회의 성역할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젠더관계 맥락에서 성차를 고려해 성폭력 이차피해 민감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공미혜(2010). 대학생의 성경험과 성폭력의 실태 및 영향요인. 여성연구  
논집 제21집.
- 공미혜, 구명숙, 허미영(2008). 대학생의 Sexuality 실태조사: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대 여성문제연구소 자료집 VIII.
- 곽대경, 신재현 (2010). 경찰의 이차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 김양희, 이수연(2002).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개발. 한국  
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pp.250-255.
- 김예람(2008). 경찰의 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도와  
통념으로 인한 성폭력피해자의 이차 피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김신영(2010). 성폭력 피해자의 이차 희생 실태에 관한 질적 연구. 아주대  
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학위논문.
- 김호원, 권다은, 이명신, 양난미(2014). 경찰관의 성폭력 관련 전문직과  
연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3권 제1호, pp.215-256
- 법무연수원(2014). 2013 범죄백서. 서울: 법무연수원.
- 배병렬(201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배병렬(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심예린(2010). 한국판 소명 척도 타당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소은희(2001). 성폭력 피해자 후유증 및 특징.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제1권, pp.3-88
- 소은영(2004). 性暴力犯罪 被害者の 權利保護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명신, 양난미, 황채운(2014). 성폭력 상담자의 다전문직간 연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5권 제3호, pp.1009-1032
- 이미경(2012). 성폭력 이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석재(1999). 강간통념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 제13권 제2호, pp.131-148
- 이재희(2008). 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정도: 부산성폭력상담소 사례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정, 조은경(2004).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이차 피해 유발 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권, pp.129-137
- 장미정(2005). 수사관의 강간통념 및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차피해 유발질문 사용과의 관계. 서울: 한국성폭력 상담소.
- 전병성(2003). 共感과 利他行動과의 關係.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미(2000).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8권, pp.162-200
- 중앙일보(2012).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300t100&wr\\_id=5013](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300t100&wr_id=5013&page=64)  
& page=64
- 탁진국(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하정, 홍세희, 유성경(2005).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KGES-AC)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제24권 제2호, pp.105-127
-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성폭력 이차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법무부.
- 한국사전연구사(1998). 종교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한국여성개발원(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제250-05호, pp.1-167
- 허선주, 조은경(201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이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pp.381-415
- 홍강의(2005). 소아정신의학. 서울: 중앙문화사.
- Ahrens, C. (2006). Being Silenced: The Impact of Negative Social Reactions on the Disclosure of Rap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8, pp. 263-274
-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pp. 217-234

- Campbell, R., Raja, S. (2005), The sexual assault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female veterans: Help-seeking experiences with military and civilian social syste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9, pp. 97-106
- Fisher, R. (1993). Social desirability bias and the validity of indirect questio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0, pp. 303-315
- Hu, L., Bentler, P. M. (1999). Cutt o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6, pp. 1-55
- Lerner(1980). M.,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fusion*. NY: Plenum.
- Maier, S. L. (2008). I Have Heard Horrible Stories...: Rape Victim Advocates' Perceptions of the Revictimization of Rape Victims by the Police and Medical System. *Violence Against Women*, Vol. 14, No. 7, pp. 786-808
- Rubin, A., Babbie, E.R.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6th). Belmont, CA: Thompson Brooks/Cole.

## Abstract

# **Valida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Scale for the college stusents**

Myong-Jin Park , Nan-Mee Yang , Myung-Shi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scale. In order to develop preliminary items, a construct was studied through the overview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nd analyzing the defini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used in these studies. Then, to develop the items that empirica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culture, a secondary victimization scale of 31 items was produced based on the existing result of qualitative research that targets professionals(Kim, et al., 2014; Lee, Yang, Hwang, 2014) who are being in charge of sexual violence case. 65 students from another domestic four-year university were asked to rate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 scale, a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made after selecting 325 students from a third domestic four-year university to finalizing the items. As a result of mak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factors that consist of 14 items were selected. Factor 1 was composed of items about blaming victim, which covered the cognition of blaming sexual violence victim. Factor 2 was constituted by items about suspicion, which covered cognition of having doubts about sexual violence victim. Factor 3 was formed by items about persuading conference, which dealt with cognition of instigating the victim to negotiate a settlement with the perpetrator. Factor 4 was consist of victim's resignation, which covered cognition that sexual violence victim has to accept damage that happens after reporting crime. Finally,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validity analysis were carried

out after 311 students from a third four-year university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goodness-of-fit of the model, and the convergent,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it was all confirmed by making a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rape myth, stereotype of gender role, gender equality. When a retest was conducted three weeks later, th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model was confirmed as well. Finally, the academic significanc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secondary victimization, rape myth, validation of scale*